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현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Shippensburg
파견대학	Shippensburg University	파견기간	2014.8~2015.5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제가 파견된 Shippensburg University는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에 위치한 작고 조용한 도시입니다. 학교도 아담하고 날씨도 좋아서 조용히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고, 신장과 비슷하게 학교 주변에 젓소농장이 있어서 소똥 냄새도 가끔 납니다. 대중교통은 학교에 다니는 버스가 전부이며 솔직히 이용하기 매우 힘듭니다. 가자마자 친구를 사귀었는데 차가 있는 친구라서 마트를 갈 때나 급한 일이 있을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서부 쪽 학교로 파견 되었던 제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 학교 학생들은 한국에 관심이 있고, K-POP에도 관심이 많아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도 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견된 학교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북한, 남한 전쟁 정도만 알고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아시아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친구들은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관심이 많아서 Study abroad도 유럽 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한국을 낮설어했습니다. 다른 한국 학교에서 교환학생 온 학생들도 전혀 없었고, 아시아 학생들도 손에 꼽힐 만큼 적었고, 한국계 학생은 어렸을 때 이민 와서 한국말이 매우 서툴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비교적 한국인 교수님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규모도 아니고 학교에 있을 것 다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다면 재미있는 클럽도 많고 좋은 친구들 그리고 훌륭한 교수님들도 많습니다.</p>

<p>2014-2학기 수업</p>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첫 학기에는 크게 부담되고 싶지 않아서 전공과목 (Principle of Microeconomic) 하나만 하였습니다. 교수님의 노트필기를 열심히 기록하고 복습을 하면 시험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교양수업들을 들었습니다. Intro Mass Communication 수업은 수업 전에 반드시 한 chapter씩 예습을 해야 합니다. 미리 숙지하고 왔다는 가정 하에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예습을 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제 전공과는 아예 관련이 없는 방송, 뉴스, 음악 쪽이어서 흥미로운 수업이었습니다. Basic Writing수업 때 미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report의 기본적인 포맷을 배울 수 있었고 Dr. Cella의 수업을 들었는데 기사들도 흥미로웠고, 수업시간 내 봉사활동 간 경험도 값졌으며, 교수님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Marching Band는 수업이라기 보다 방과후 활동 개념으로 참여했습니다. 풋볼경기를 응원하거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 관악기 등으로 연주하고 저는 Color guard로 flag를 배워서 공연했습니다. 처음에는 몸도 힘들었지만 trip들도 즐거웠고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였고 즐거웠고,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한 General Psychology 수업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기초라서 호르몬이나 신체부위 등을 배웠지만 매우 재미있고 추천하고 싶은 과목입니다.</p> <p>미국의 시험 유형은 다양합니다. 객관식, OX퀴즈, 주관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 숙지했는가를 확인합니다. 제가 느낀 한국 시험과의 차이점은 한국시험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이걸 모르겠지 라는 식으로 굉장히 험악하게 내거나 고민하게 하지만, 미국 시험은 이 정도만 알면 수업시간에 충실하게 들은 것으로 인정, 이것도 모르면 수업시간에도 대체 뭐한거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잘 볼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시험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이 당연히 문제에 나와서 풀면서 스스로 개운했던 느낌이 많았습니다. ㅎㅎ</p>
------------------------	--

2015-1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p> <p>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스페인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들은 전공과목으로 연계한 과목들입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지형적, 지리적, 문화적 특징을 배우고 싶다면 Geography of US and Canada 과목을 적극 추천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립공원들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어서 미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Geography of East Asia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과목인데 교수님이 일본인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역사적 분쟁 등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룬 모습이 인상 깊었고 수업도 즐거웠습니다. 다소 넘겨 짚기 쉬운 부분들도 시험문제에 내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하고, PPT 자료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책 살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International Business수업은 제 전공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수업시간이 즐거웠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개인적인 일들이 많아서 휴강을 많이 해서 좋으면서도? 아쉬웠던 수업이었고, X-Culture라는 과제를 의무로 해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서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덕분에 유럽,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Supply Chain & Operation Management는 물류 쪽에 관심 있던 저에게 2학기 중 가장 흥미로운 수업이었고, 교수님은 인도네시아 교수님이었는데 설명도 잘하고 재미있어서 매우 좋았던 수업입니다. 계산 문제가 많았지만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큰 어려움 없었고,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겨울방학 때 텍사스와 멕시코시티를 여행 후 관심이 생겨서 두 번째 학기 때 스페인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Beginning Spanish로 기초 인사말부터 배우는 기본수업 입니다. 한 학기만 배우기엔 아쉬웠고, 배우고 싶다면 2학기 모두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 배우는 언어이고, 영어로 배워서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었고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Speaking 시험은 파트너와 짝을 만들어서 교수님 앞에서 대화하는 것이고, writing 시험은 작문을 하고 질문에 답을 쓰는 형태였습니다.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강력추천 합니다.</p>
----------------	---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한국에서부터 많이 연락하고, Study abroad를 담당하는 Mary가 가장 든든한 교수(직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분이고 친절해서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Mentor 교수님이 짝지어졌는데 제 멘토 교수님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시험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상담을 하거나, 그냥 office hour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근황토크도 하고 친구처럼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교수님이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저한테 항상 핫소스를 선물로 주셨는데 제 취향은 아니어서 많이 쓰지 못하고 그대로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ㅎㅎ International students 를 위한 모임(coffee hour)도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어서 약속을 정해서 만나서 놀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 우연히 만나도 반갑게 인사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은 없었지만 소소하게 모임들이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항상 제 수업시간과 겹쳐서 많이 참여는 못했지만, 꼭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여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에 많아서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보면 정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도착한 8월은 너무 덥고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는 필수품입니다. 하늘도 너무 예쁘고 구름도 예쁘고 날씨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비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우산을 안 쓰고 그냥 맞거나 모자만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의아했었습니다. 겨울에는 당연히 추웠고, 눈이 많이 와서 휴강된 수업도 몇 개 있었습니다. 기후는 우리나라랑 비슷했습니다. 학교 건물 내에는 에어컨, 히터를 땡땡하게? 틀어주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Fall break 가 지나면 바로 추워지고, Spring break가 끝나면 더워져서 계절이 뚜렷한 기후였습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학교 캠퍼스 내는 매우 안전합니다. 경찰차가 학교 내에 순찰도 자주 합니다. 가끔 긴급 이메일로 학교 주변 상점에 도둑이 들었다는 이메일이 오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기숙사에서 위드를 피는 학생들이 꽤 많아서 놀랐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마약을 불법으로 하는 주이지만, 공공연하게 위드를 피는 학생들이 많고, 금요일 밤에 복도 전체에 위드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숨어서 피어서 그런지 룸메들은 마약을 하지 않아서 크게 상관 없었지만 처음 말했을 때는 어지러웠습니다. 캠퍼스 내에는 안전하지만 저 스스로 늦게 돌아다니지 않고 일찍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아파트 형식의 Stone ridge라는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Off campus 건물이지만 학교와 매우 가깝게 있고 다른 기숙사와 비교적 저렴하였고, 부엌도 있어서 마트에서 장을 봐서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밖에 없기 때문에 식기류 등은 월마트에서 사거나 룸메들이 대부분 다 가져오기 때문에 같이 써도 됩니다. 순천향대처럼 건물 자체가 남녀로 구분되지 않고 한 건물에 방마다 성별을 다르게 해서 정말 그냥 아파트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2개의 방이 있고 각 방마다 2명씩 같이 지내고,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습니다. 배정받을 때 미국인들 3명과 함께 지냈고, 주말에 같이 요리도 해먹고, 저녁에 씻고 들어와서 룸메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해서 좋았습니다. 제 룸메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깔끔하였고 모든 집안일들을 타당하게 분배를 하였고 함께 시간 조율을 해서 같이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내용이나 무슨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나서서 도와주고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준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맞지 않는 학생들을 배정해 줄 수도 있으니, RD(기숙사 사관?)에게 미리 취향(loud music을 싫어한다거나 야행성 등등)을 이야기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조정해서 룸메들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룸메가 되면 2학기(1년동안) 쓰고, 중간에 방을 바꾸기도 번거롭기 때문입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0)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0)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첫 학기엔 밀플랜을 신청했습니다. 요리에 자신감도 없었고, 뷔페식으로 잘 나오고 다양한 미국 음식들을 접했습니다. 바로 식당에 가서 먹으면 되서 편했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고 너무 많이 사서 다 쓰지도 못하고 학기가 끝났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살도 많이 찼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밀플랜을 아예 안하고 마트에 가서 장봐서 직접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돈도 많이 절약되고 덜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좋았지만 가끔 귀찮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식당에 돈 주고 사서 먹는게 더 나았습니다. 플렉스(flex)라고 밀플랜과 다르게 현금을 넣어두고 쓸 수 있는데 편리했습니다. 100달러 정도 해놓고 필요하면 더 충전해서 쓰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했습니다.</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기숙사에서 학교 캠퍼스 모든 건물을 걸어서 15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가려면 정해진 시간마다 오는 버스를 타야 하고, Harrisburg로 나가서 기차를 타거나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매우 불편하고, 그나마 가까운 큰 도시는 뉴욕이나 필라델피아인데 차로 3~4시간 걸립니다. 학교 근처 Harrisburg 공항까지도 차로 1시간 정도 위치해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이동할 때 교통수단은 불편하지만, 동부 쪽(뉴욕, 볼티모어, 필라델피아)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여행하기 편리합니다. 미국을 여행하면서 느낀 건 자동차로 기본 이동시간 4~5시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80만원(오픈티켓)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샀습니다. 가장 기본 옵션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숙소	\$5,414(2014-2) \$4,227(2015-1)	항목마다의 상세한 비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왼쪽 가격은 제가 토털 지불한 bill history를 참고하였습니다. 기숙사 가격, 밀플랜, service fee, 학생회비 등 tuition을 제외한 다양한 항목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밀플랜에 따라 가격도 다양하고 기숙사마다 가격도 다릅니다. 첫 학기에는 밀플랜을 했었고, 두 번째 학기에는 밀플랜을 신청 안하고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기숙사에서 해먹었습니다.
식비		밀플랜을 신청 안하고, 한 달에 한번 마트에 가면 10만원 이내 샀던 것 같습니다.(8~90달러)
교통비		
책값	한 학기에 10만원 이상	미국은 책값이 매우 비싸고 구입이 아니라 렌트만 해도 비싸기 때문에 OT때 잘 듣고 책을 안 사도 되면 사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1		
기타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작년에 선배들한테 들었을 때, 미국에 가면 싸고 예쁜 옷들 많으니까 버릴 옷 가져가서 입다가 버리고 새 옷들을 많이 사라고 그랬는데, 막상 가니까 사이즈 엄청 큰 옷들과 한국에서 파는 옷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평범하고 안 예쁜 옷들이 많더라구요. (개인 취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된 학교가 달라 주변 쇼핑몰 환경이 달라 그 조언이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피서 옷 사는 것도 싫고.. 한국에서 입던 예쁜 옷들 많이 가져가세요. Shippensburg University 근처에는 아울렛, 쇼핑몰을 구경하기 너무 힘들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지만 사이즈 선택도 어려웠고, 제가 원래 인터넷 쇼핑을 잘 안해서 아예 안 사게 되더라구요^^;

친해진 친구들이나 교수님들께 줄 선물이나 편지 등 한국과 관련된 것들을 주면 호기심에 관심도 있어하고 좋아하더라구요! 저는 한복 디자인으로 된 편지지를 가져가서 선물로 주니까 좋아했어요. 친구들에게 줄 선물은 아기자기한 거 가져가고 교수님들 드릴 것은 좀 격식있어 보이는 걸 가져갔는데, 미국 어른들은 젊게 살아서 그런지 귀여운 것들도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팬시점에서 파는 물건들이 정말 아기자기 귀엽고 신기한 것들 많으니까 그런거 준비해서 선물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계속 영어 공부 할꺼라 생각해요. 저도 출국하기 전까지 토플단어장 가지고 단어 외우고 공부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때는 토플시험용 단어를 공부하는 것 보다 미드도 많이보고, 슬랭(slang) 단어들을 공부하는 편이 더 좋아요. 당연히 수업시간에 학문적인 단어들도 사용하지만 특별히 과학용어 등이 아닌 이상 정말 쉬운 단어들도 많이 쓰답니다. 그리고 막상 미국가서 룸메들끼리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재밌는 단어들도 많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항상 그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기꺼이 설명도 해주고, 구글에 slang dictionary를 추천해줬어요. 책에서 공부한 단어와 실제 일상생활에서 또래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많이 다르니까 미리 관심을 가지고 알고 가면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꺼라 생각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미국에 파견되기 전에 있었던 생각들? 환상들과 막상 가서 겪어보고 다른 점들이 많았어요. 외국인들은 다 친절할 것 같았고, 호기심에 나에게 먼저 와서 말도 걸어주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비슷하면서 환상과는 다른 점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외국인들은 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와줄 것 같았지만 모든 외국인이 다 친절한 건 아니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어떤 친구는 친절하지만 어떤 친구는 내성적이기도 하고 사람 성격마다 다른 거였지 외국인이라고 다 친절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먼저 말 걸고,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미국 가기 전 준비할 때, 사소한 것이라도 미리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가야 될 힘들 것 같아요. 당연히 미국에 가서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가는 거지만 일단은 거기서 부모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살아야 하고, 생활을 하고 지내야 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도 할 줄 알고 미리 하는 방법이라도 배워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요리도 해본 적 없고 자취도 안 해봐서, (양파 써는 방법도 몰라서 허둥지둥 댔지만) 가서 경험으로 많이 겪었고 같이 간 언니들과 친구, 심지어 룸메들한테 배웠어요. 이건 너무 사소한 예를 들었지만 1년 동안 나 스스로 요리 해먹고, 살림을 살고 거기다가 공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낯선 외국 땅에 가서 배우려면 힘드니까 가기 전까지 독립심도 미리 충전하면서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연습, 복습 철저히 하면 따라가는데 문제는 없어요. 가끔씩 찾아오는 인간적인 외로움과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의미 없다고도 생각이 들 때,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5일을 바쁘게 하얏게 불 태웠다면 하루 정도는 자기에게 충분한 자유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었는데 한국에서의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정말 신기했던 게 한국에 있을 때도 똑같이 24시간이 흘러갔는데, 그 시간을 정말 다르게 생활하고 특유의 급함과 빨리빨리 그런 것 없이, 여유롭고 고즈넉한 시간을 누리고 온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갈 것을 추천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장소를 여행했는지 신기하고 또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순간을 추억하면 너무 좋아요. 교환학생 가는 1년의 시간을 온전히 나에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아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는 것을 추천해요. 공부하느라 바쁠 때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다가도 그 순간의 느낌이 사진으로 오래오래 남아서 나중에 다시 봐도 그 때가 떠오르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후의 제 계획은 1년 동안 나만의 위시리스트를 적었었는데 하나씩 천천히 도전해보려구요. 미국에서 들은 전공과목들이 매우 흥미로웠고, 제게 자극이 되었어요. 전공 관련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교환학생 경험이 제 견문을 넓혀준 첫 계기가 되었고, 도전하는 자세, 뭐든지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많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은 바탕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도전할 계획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학교 처음 도착한 날, 도서관 앞에서 바라본 학교 전경</p>	<p>Marching Band 중 Color guard 연습중</p>
	
<p>학교 입구~!</p>	<p>캠퍼스와 어울린 예쁜 구름 (하늘 볼 날이 많을꺼예요~!)</p>



같이 지낸 룸메, 키다와 함께



눈 오는 겨울 수업 갈 때